

기혼 남녀의 사회계층의식에 관한 연구

이 병 훈*·신 재 열**

이 연구에서는 한국노동패널자료(KLIPS)를 활용하여 기혼남녀의 사회계층의식에 대해 부부의 개인적 속성과 가구속성을 중심으로 그 영향 여부를 검토한다. 이번 분석에서 무엇보다 두드러진 결과로서 성별을 불문하고 그리고 조사시점에 관계없이 기혼 남녀의 사회계층의식에 대해 가구의 경제적 속성이 매우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둘째, 기혼 남녀의 계층의식에 관한 국내외 선행연구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기혼 남성의 경우에는 자신의 계층의식을 독자적으로 형성하는 “독립형”의 성격을 강하게 갖고 있는 반면, 기혼 여성들은 본인의 특성과 배우자 속성이 함께 고려되는 “공유형”을 보이는 가운데, 특히 취업한 기혼 여성의 경우에는 흥미롭게도 배우자의 속성에 의존하거나 차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 특기할 만하다. 기혼 남녀의 사회계층의식에 대해 본인과 배우자의 주요 특성으로서 학력과 비정규직 취업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으며, 기혼 여성의 경우에는 연령층에 의한 유의한 영향이 보고되고 있다.

1. 머리말

사회계층의식(social status consciousness) 또는 계층정체성(status identification)은 사회구성원들이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어떠한 계층적 위계수준에 속하는지를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계층의식은 사회계층의 위계속에서 자신의 지위를 자리매김하거나 특정 계층지위에 주관적 일체감을 갖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이병훈·윤정향 2006) 그러면, 과연 사람들은 어떠한 기준에 입각하여 자신의 계층의식, 즉 계층적 지위를 판단하고 있을까? 또한, 남성과 여성이 자신의 계층지위를 인지함에 있어 작용하는 영향요인들이 서로 같은 것일까, 아니면 틀린 것일까? 더욱이, 한 가족을 이루는 부부가 각자의 계층적 위상을 평가할 때 서로가 독립적인 존재로서 인식할까 또는 공동의 계층적 단위로 판단하고 있을까? 이런 물음들은 그동안 주관적 계층의식에 관한 기존 연구에서 핵심적인 과제로서 다양한 방식으로 다뤄져 왔다.

* 중앙대학교 교수

** 중앙대학교 대학원생

계층의식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생활세계의 다양한 사회적 존재조건에 의해 영향받기 마련이다. 특히, 가족이 사회구성원들의 물질적인 생존기반을 형성·유지하고 그들의 사회화와 정서적 유대를 뒷받침하는 기본적인 생활단위이므로 자연히 사회계층의식을 논구함에 있어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때, 남녀가 가족내의 역할관계와 사회문화적 위계구조에 따라 상이한 위상이 부여되는 만큼, 사회계층의식의 결정매커니즘에 대한 성특수적 관점(gender-specific perspective)이 이론적으로 제기되었을 뿐 아니라 경험적으로 폭넓게 분석되어 왔다. 다시 말해, 국내외의 선행 연구에서는 남녀간에 사회계층의식의 결정 매커니즘이 상이하다는 점에 대해 별 이론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다.(Simpson 등 1988; Davis & Robinson 1988; 김병조 2000; 장상수 1996) 산업사회의 전형적인 가족관계에 있어 경제적 소득을 책임지는 남성가구를 기준삼아 여성 배우자를 비롯한 가구구성원들의 계층적 지위 또는 의식성향을 논의해온 남성편향적 연구관점이 비판·기각되는 한편, 여성들의 확대되는 경제활동 참여를 통해 계층의식의 독자적인 형성 가능성이 관련 연구에서 폭넓게 수용·분석되고 있는 것이다.(최문경·이기엽 2006; 이재경 1992)

이 연구에서는 한국노동패널자료(KLIPS)를 활용하여 기혼남녀의 사회계층의식에 대해 부부의 개인적 속성과 가구속성을 중심으로 그 영향 여부를 살펴보고자 한다. 기혼 남녀의 계층의식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는 부부의 계층적 속성들이 서로 영향 미치는 효과에 대해 주되게 분석하고 있는 것에 비해, 이 연구에서는 가구단위의 사회경제적 조건을 추가적인 분석변인으로 포함시켜 그 영향여부를 검증하고 있다. 또한, 패널자료의 종단비교분석을 통해 기혼남녀의 사회계층의식 변동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검출하고 있다.

II. 선행연구 검토

사회계층의식의 결정매커니즘에 대해서는 실로 다양한 이론적 접근과 수많은 실증분석이 제시되어 왔다. 그동안 계층의식에 대한 대표적인 이론적 시각으로는 생산관계상의 지위를 강조하는 마르크스주의적 접근과 사회경제적 조건에 초점을 맞춘 베버주의적 분석이라 할 수 있다. 이들 시각에서는 사회구성원의 계층의식이 생산수단 및 통제수단의 소유여부와 소득·직업·교육의 보유수준과 같이 물질적 조건이나 객관적인 개인 속성에 의해 좌우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계층의식이 생산관계와 사회경제적 조건을 단순히 반영·결정되기 보다는 일상생활의 공통경험과 사회문화적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변용되는 구조화(structuration)에 주목하는 과정적인 연구관점이 제기되기도 한다.(안치민 1992) 아울러, 계층의식의 구조화에 있어 사회적 상호작용, 특히 부모·배우자·형제·친지 등과 같은 핵심준거집단(key reference group)의 영향을 강조하는 준거집단과정이론이 등장하여 객관적 계층지위와의 괴리 가능성을 지적하였다는 점이 흥미롭다.(Kelly & Evans 1995)

남녀의 계층의식에 대해 초기 연구에서는 가부장적 가족생활을 전제하여 남성 가구부양자의 특성을 중심으로 분석되었으나, 1980년대 이후에는 남녀의 가족내 노동분업과 권력구조를

감안하여 계층의식의 성적 특수성(gender-specificity)을 규명하려는 실증분석이 다양하게 시도되었다.(최문경·이기엽 2006; Yamaguchi & Wang 2002) 이같은 성인지적 연구논의에서는 여성의 계층의식이 남성 가구주에 종속-연동시키는 전통적 연구관점을 비판하면서 여성들이 독자적인 계층의식을 형성할 가능성을 제기함으로써 기혼 남녀의 계층의식에 대해 상이한 결정매커니즘이 작동할 수 있다는 점을 이론적 관점에서 뿐 아니라 실증적 분석을 통해 입증하였다. 특히 기혼남녀의 계층의식에 대한 성인지적 연구에서는 부부간의 상호 영향방식에 따라 크게 3가지의 이론적 모형을 제시-검토해오고 있는 바, (1) 부부간에 개인의 특성에 따라 독자적인 계층의식을 갖게 된다는 독립모형(independence model), (2) 부부간의 상호영향을 통해, 즉 부부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함께 고려하여 일치된 계층적 소속감을 갖게 된다는 공유모형(sharing model), 그리고 (3) 부부간에 높은 계층지위를 빌려 공통의 계층의식을 갖게 된다는 차용모형(borrowing model)이 그에 해당된다.(최문경·이기엽 2006; Davis & Robinson 1988) 이같은 3가지 이론적 모형을 검증함에 있어서는 기혼 남녀들이 자신의 계층의식을 독자적으로 형성-유지하는가, 아니면 공유 또는 차용에 의해서든 배우자와의 동일한 계층정체성을 갖게 되는가에 대해 분석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다시 말해, 최근 연구에서는 기혼남녀의 계층의식에 있어 본인과 배우자의 사회경제적 특성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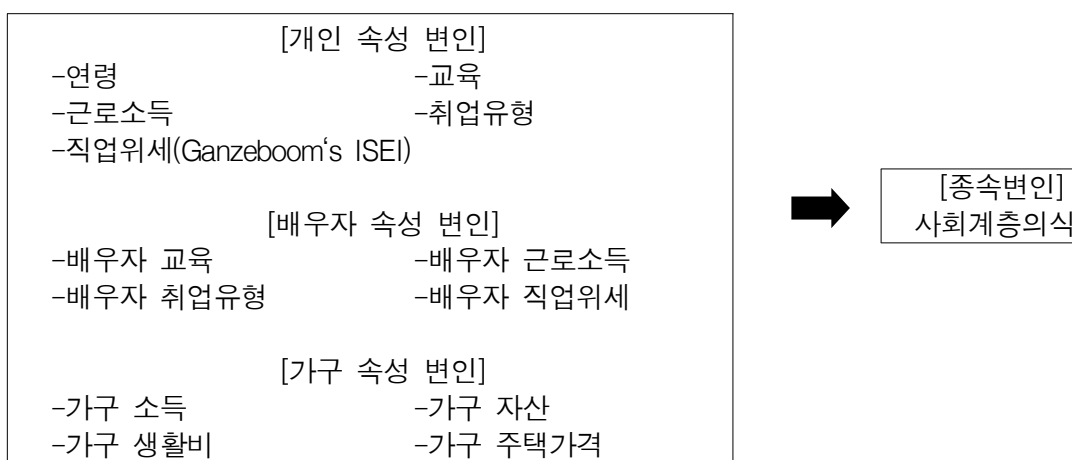
그동안의 연구에서는 기혼 남성의 경우에 배우자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관계없이 본인의 속성에 따라 '독자적'으로 자신의 계층의식을 결정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최문경·이기엽 2006; Davis & Robinson 1988) 이때, 기혼남성은 일반적으로 가구단위의 주된 경제적 수입원이 되므로 자신의 계층의식을 독립적으로 형성-보유하게 되며, 또한 사회적 관계에 있어 최대한 자신의 계층지위를 높이려는 지위극대화의 경향(Coleman & Rainwater 1973)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반면, 그동안 자본주의적 가족내 노동분업에 있어 비경제적 가사활동에 종사하는 기혼여성은 가계부양의 경제활동을 맡고 있는 남성 배우자의 계층적 위상에 연동시키거나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대부분의 나라에서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가 확대되면서 이들의 계층의식이 남성 배우자와 대등하게 계층의식을 공유하거나 독립적인 경향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Davis와 Robinson(1988)은 미국 기혼 남녀의 계층의식이 1970년대와 1980년대 사이에 어떠한 변화경향을 보이는지를 분석한 결과 기혼남성의 경우에는 일관되게 자신의 계층정체성을 독립적으로 형성-유지하는 반면 여성의 경우에는 취업의 확대와 더불어 이전의 차용모델에서 공유모델로 이행하고 있는 것을 경험적으로 밝히고 있다. 우리나라 기혼남녀의 계층의식에 대한 실증분석에서도 대체로 유사한 경향성이 확인되고 있다. 최문경·이기엽(2006)은 기혼남녀의 계층의식에 작용하는 영향요인의 가중치에 대한 국제 비교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기혼남성들이 자신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계층적 정체성을 판단하고, 기혼여성의 경우 자신과 배우자의 소득을 공히 고려하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박미혜·홍두승(1994)는 기혼여성의 취업활동 참가가 본인과 배우자의 계층인식에 유의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밝혀냈다.

그런데, 기혼 남녀의 계층의식에 관한 기존 연구에서는 부부간의 상호작용에 주된 관심의

초점을 두다보니 부부가 함께 생활하는 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의한 영향을 제대로 검토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가족이 경제적 생산과 소일상생활의 재생산과 소비가 이뤄지는 기본단위이다.(이재경 1992; Acker 1973) 따라서, 기혼 남녀의 계층의식은 자신과 배우자의 특성 못지 않게 그들이 속해 있는 가구의 사회경제적 조건이 영향 미칠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사회계층의 영향요인에 대한 기존 연구에서는 가구의 거주지(신광영 1999)와 주택유형(신광영 2003; 이병훈·윤정향 2006), 가구의 자산(김병조 2000)과 소득(권성일 1994; 조돈문 1994), 그리고 가구의 소비지출(Yoon & Seok 1996) 등이 개인의 계층지위와 계층의식에 중요하게 영향 미친다는 실증분석이 제시되어 왔다.

요컨대, 기혼남녀의 계층의식에 대한 영향요인을 검출함에 있어 본인과 배우자의 주요 인적 속성과 더불어 해당 가구의 사회경제적 조건을 따져보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림 1]은 기혼 남녀의 계층의식에 대한 영향요인을 검증하기 위한 분석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기혼 남녀의 계층의식에 대한 주요 영향요인으로 검토되어온 교육·소득·직업(취업유형과 직업위세)을 본인과 배우자의 인적 속성으로 구분하여 그 효과를 살펴보고, 이에 더하여 가족단위의 사회경제적 조건으로서 가구의 소득·자산·생활비·주택시세를 포함시켜 영향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그림 1] 기혼남녀의 계층의식에 관한 분석모형



III. 연구방법

1. 분석자료

이 연구는 한국노동패널의 2차년도(1999년)와 10차년도(2007년)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고 있다. 이번 연구의 종속변인으로 분석되는 주관적 계층의식에 대해 사회경제적 지위를 묻는 설문문항은 여섯 차례(2차·3차·5차·8차·9차·10차) 조사되었는데, 시계열상의 변동여

부를 확인하기 위해 2차년도와 10차년도의 조사자료를 추출-통합하여 비교분석하고 있다. 기혼부부만을 추출하기 위해 결혼관계를 묻는 설문문항에서 '기혼 유배우'를 선택한 응답자 집단을 선별하였으며, 또한 2차년도와 10차년도 기혼남녀의 사회계층의식에 대한 결정매커니즘을 엄밀하게 비교하기 위해 2개 년도에 걸쳐 동일하게 조사되고 있는 부부만을 추출한 결과 2,376쌍(4,752명)이 분석표집으로 구성되었다.¹⁾ [표 1-1]과 [표 1-2]에서는 각각 2차년도와 10차년도의 분석표집에 대해 기본 속성 범주별로 사회계층의식의 분포를 비교-예시하고 있다.

[표 1-1] 2차(1999년) 패널 분석표집의 인구학적 속성과 사회계층의식 분포 (단위: 명, %)

		사회계층 의식				합계
		상	중상	중하	하	
전체		14 (0.3)	962 (20.2)	2,801 (58.9)	975 (20.5)	4,752 (100.0)
성별	남성	8 (0.3)	481 (20.2)	1,385 (58.3)	502 (21.1)	2,376 (50.0)
	여성	6 (0.3)	481 (20.2)	1,416 (59.6)	473 (19.9)	2,376 (50.0)
연령	20~30대	2 (0.1)	356 (19.7)	1,164 (64.3)	288 (15.9)	1,810 (38.1)
	40대	7 (0.5)	326 (22.8)	819 (57.3)	277 (19.4)	1,429 (30.1)
	50대	3 (0.3)	179 (19.0)	537 (56.9)	225 (23.8)	944 (19.9)
	60대 이상	2 (0.4)	101 (17.8)	281 (49.4)	185 (32.5)	569 (12.0)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0 (0.0)	92 (10.1)	486 (53.3)	334 (36.6)	912 (19.2)
	중학교 졸업	0 (0.0)	104 (13.0)	493 (61.5)	205 (25.6)	802 (16.9)
	고등학교 졸업	8 (0.4)	388 (19.9)	1,215 (62.4)	336 (17.3)	1,947 (41.0)
	전문대 졸업 이상	6 (0.5)	378 (34.6)	607 (55.6)	100 (9.2)	1,091 (23.0)
취업 유형	정규직	6 (0.5)	304 (23.6)	806 (62.6)	172 (13.4)	1,288 (27.2)
	비정규직	0 (0.0)	35 (7.6)	262 (57.2)	161 (35.2)	458 (9.7)
	자영업/가족종사자	3 (0.2)	271 (20.6)	787 (59.9)	253 (19.3)	1,314 (27.7)
	미취업/실업	5 (0.3)	346 (20.6)	941 (56.1)	386 (23.0)	1,678 (35.4)

1) 이번 분석표집에는 부모부부와 자녀부부가 함께 거주하는 대가족이 16개 가구에 포함되어 있다.

[표 1-2] 10차(2007년) 패널 분석표집의 인구학적 속성과 사회계층의식 분포 (단위: 명, %)

		사회계층 의식						합계
		상상	상하	중상	중하	하상	하하	
전체		21 (0.4)	84 (1.8)	1,001 (21.1)	1,976 (41.6)	1,204 (25.3)	466 (9.8)	4,752 (100.0)
성별	남성	11 (0.5)	46 (1.9)	510 (21.5)	991 (41.7)	590 (24.8)	228 (9.6)	2,376 (50.0)
	여성	10 (0.4)	38 (1.6)	491 (20.7)	985 (41.5)	614 (25.8)	238 (10.0)	2,376 (50.0)
연령	20~30대	3 (0.5)	4 (0.7)	149 (25.1)	269 (45.4)	129 (21.8)	39 (6.6)	593 (12.5)
	40대	4 (0.3)	28 (1.8)	354 (22.7)	689 (44.2)	381 (24.4)	104 (6.7)	1,560 (32.8)
	50대	6 (0.4)	31 (2.3)	291 (21.8)	543 (40.7)	330 (24.7)	134 (10.0)	1,335 (28.1)
	60대 이상	8 (0.6)	21 (1.7)	207 (16.4)	475 (37.6)	364 (28.8)	189 (15.0)	1,264 (26.6)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0 (0.0)	3 (0.3)	97 (10.7)	325 (35.8)	307 (33.8)	177 (19.5)	909 (19.1)
	중학교 졸업	0 (0.0)	4 (0.5)	95 (10.8)	363 (41.1)	302 (34.2)	119 (13.5)	883 (18.6)
	고등학교 졸업	4 (0.2)	19 (1.0)	397 (20.8)	863 (45.3)	474 (24.9)	148 (7.8)	1,905 (40.1)
	전문대 졸업 이상	16 (1.5)	54 (5.2)	402 (38.8)	422 (40.7)	121 (11.7)	22 (2.1)	1,037 (21.8)
취업 유형	정규직	3 (0.3)	34 (2.9)	293 (24.8)	522 (44.2)	257 (21.8)	72 (6.1)	1,181 (24.9)
	비정규직	0 (0.0)	0 (0.0)	46 (10.0)	156 (33.9)	181 (39.3)	77 (16.7)	460 (9.7)
	자영업/가족종사자	5 (0.4)	11 (0.8)	298 (22.7)	591 (45.0)	326 (24.8)	82 (6.2)	1,313 (27.6)
	미취업/실업	13 (0.7)	39 (2.2)	364 (20.2)	707 (39.3)	440 (24.5)	235 (13.1)	1,798 (37.8)

2. 인가공과 분석방법

이 연구의 종속변수인 사회계층의식은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응답자의 주관적 인식으로 측정하고 있다. 2차년도에서는 “(1)상층” “(2)중상층” “(3)중하층” “(4)하층”의 4점 척도로, 그리고 10차년도에서는 “(1)상상” “(2)상하” “(3)중상” “(4)중하” “(5)하상” “(6)하하”의 6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²⁾ 각년도의 횡단분석에서는 이 변인을 역코딩하여 분석하였으며, 2차~10차년도의 계층의식 변동을 분석하는 종단분석에서는 10차년도의 6점 척도를 차년도의 4점 척도로 일치시켜 그 변화크기를 가공하여 분석하였음을 밝혀둔다.

독립변인은 크게 개(본)인 속성, 배우자 속성, 그리고 가구 속성의 변인들로 구성된다. 개인 속성과 배우자 속성의 변인으로는 기존 연구에서 주요 계층요소로 다뤄져온 학력(교육년수), 근로소득, 취업유형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부부 모두 취업하고 있는 표본집단에 대한 분석에서는 Ganzeboom 등(1992)이 개발한 직업위세의 국제 사회경제적 지표(International Socio-economic Index of Occupational Status, ISEI)를 참조하여 취업중인 직업의 위세점수³⁾를 산출하여 설명변인으로 활용하였으며, 또한 통제변인으로 연령층 범주를

2) 참고로, 3차년도와 5차년도에서는 사회경제적 지위를 묻는 설문문항에 대해 5개 선택지(상층·중상층·중류층·중하층·하층)로 묻고 있다.

3) 직업위세의 산출에 있어 ISEI지수가 국제표준직업분류(ISCO)를 기준으로 개발된 지표인데 반하여, 우리나라는 국제표준직업분류를 2002년도 이후 현지 실정에 맞추어 새롭게 개편하였기 때문에 개인의 주된 일자리에 대해 바로 ISEI지수를 적용할 수 없었다. 따라서, 개편된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대

포함시켰다. 가구 속성의 변인으로 가구 수준의 경제적 조건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로서 총소득(근로소득과 비근로소득의 합계), 자산(주택자산을 제외한 동산-부동산의 합계 총액), 연간 생활비, 그리고 주택가격을 가공하여 활용하고 있다. 응답자들의 거주유형이 자가주택, 전세, 그리고 월세임대로 구분되는데, 주택가격의 가공에 있어 주택과 전세는 응답된 가격을 그대로 사용하고 월세임대의 경우에는 '월세보증금 + 월세임대료/월세이자율'⁴⁾의 산출공식에 따라 전세금으로 환산하여 포함시켰다. 근로소득과 4개 가구변인들은 회귀분석에 있어 자연대수값으로 치환하여 활용하고 있다. [표 2]에서는 분석변인들의 기초통계를 예시하고 있다.

기혼남녀의 사회계층의식에 작용하는 영향요인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종속변인들의 서열범주(ordinal category) 특성을 감안하여 2차년도와 10차년도의 패널표집에 대해, 그리고 2차~10차년도의 계층의식 변동에 대해 Ordered Logit 회귀분석기법을 적용하고 있다. 그에 앞서, 취업유형별 기혼남녀의 계층의식 수준을 비교함에 있어 일원 변량분석(one-way ANOVA analysis)을 활용하기도 하였다.

해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신·구연계표를 참조하여 ISCO에 맞는 직업분류를 전환한 다음 ISEI의 직업 위세점수를 산출하였다.

4) 임대월세를 전세금으로 치환하기 위해 한국은행DB에 기재되어 있는 1999년(1.77%)와 2007년(0.99%)의 월세 이자율을 적용하였음을 밝혀둔다.

[표 2] 분석변인과 기초통계

변인 설명		2차 패널		10차 패널		변수값 정의
		남성	여성	남성	여성	
개인 속성	학력	11.64 (3.7)	10.26 (3.8)	11.53 (3.7)	10.13 (3.7)	▶ 교육년수
	근로소득	5.63 (3.0)	2.06 (3.10)	6.02 (3.3)	2.61 (3.4)	▶ 자연대수 치환
	연령층					
	20-30대	.33 (.47)	.43 (.50)	.08 (.27)	.17 (.37)	▶ 더미변인: 20-30대 기준 범주
	40대	.30 (.46)	.30 (.46)	.32 (.46)	.34 (.47)	
	50대	.22 (.41)	.18 (.38)	.29 (.45)	.27 (.44)	
	60대 이상	.15 (.36)	.09 (.29)	.31 (.46)	.22 (.41)	
	취업유형					
	정규직	.40 (.49)	.15 (.36)	.33 (.47)	.16 (.37)	▶ 더미변인: 정규직
	비정규직	.10 (.30)	.09 (.29)	.10 (.30)	.09 (.29)	기준범주: 자영업자-
	자영업자	.34 (.47)	.22 (.41)	.34 (.47)	.22 (.41)	무급가족종사자 포함
미취업/실업	.17 (.37)	.54 (.50)	.23 (.42)	.53 (.50)		
직업위세	38.66 (12.3)	38.04 (12.8)	38.25 (13.0)	36.72 (13.1)	▶ Ganzeboom 등의 ISEI 점수	
배우자 속성	배우자 학력	10.26 (3.8)	11.64 (3.7)	10.13 (3.7)	11.53 (3.7)	▶ 교육년수
	배우자근로소득	2.06 (3.10)	5.63 (3.0)	2.61 (3.4)	6.02 (3.3)	▶ 자연대수 치환
	배우자취업유형					
	정규직	.16 (.37)	.33 (.47)	.15 (.36)	.40 (.49)	▶ 더미변인: 정규직
	비정규직	.09 (.29)	.10 (.30)	.09 (.29)	.10 (.30)	기준범주: 자영업자-
	자영업자	.22 (.41)	.34 (.47)	.22 (.41)	.34 (.47)	무급가족종사자 포함
	미취업/실업	.53 (.50)	.23 (.42)	.54 (.50)	.17 (.37)	
배우자직업위세	38.04 (12.8)	38.66 (12.3)	36.72 (13.1)	38.25 (13.0)	▶ Ganzeboom의 ISEI Index	
가구 속성	가구 소득	7.19 (1.5)		7.99 (0.9)		▶ 자연대수 치환
	가구 자산	6.35 (3.1)		6.58 (3.7)		▶ 자연대수 치환
	가구 생활비	7.08 (0.5)		7.71 (0.6)		▶ 자연대수 치환
	가구 주택가격 ¹	8.46 (0.9)		9.20 (1.0)		▶ 자연대수 치환
종속 변수	사회계층의식	1.99 (0.6)	2.0 (0.6)	2.82 (0.9)	2.79 (0.9)	▶ 2차-4점범주, 10차-6점범 주; 회귀분석시 역코딩자 료 활용;

IV. 분석결과

[표 3]에서는 가구내 부부의 계층의식을 비교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2차년도에 경우에는 전체 가구의 80.6%에서 부부가 동일한 수준의 계층지위를 갖는 것으로 응답하고 있다. 또한, 2차년도 패널에서는 부인이 남편보다 높은 계층의식을 갖고 있는 가구의 비중(10.3%)이 남편이 부인보다 높은 계층의식을 보이는 가구(9.1%)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차년도에서는 부부의 동일한 계층의식을 나타내는 가구의 비중이 76.2%로 다소 감소하는 가운데, 남편이 부인보다 높은 계층의식을 보이는 가구의 비중(13.8%)이 그 반대의 경우(10.1%)에 비해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2차년도와 대비된다. 흥미롭게도, 기존 연구에서는 남편의 계층

의식이 계층지위 극대화의 경향을 보이는 가운데 부인들의 계층의식이 이에 수렴하거나 차용하는 것으로 논의해오고 있던 것과 달리, 2차년도와 10차년도 노동패널에서 부인이 남편보다 우월한 계층지위의식을 갖고 있는 비중이 조사대상 가구 전체의 10% 수준에 이른다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표 3] 가구당 부부의 계층의식 비교 (가구, %)

부부의 계층지위 인식	2차 패널 (1999년)	10차 패널 (2007년)
남편=부인 가구	1,915 (80.6)	1,810 (76.2)
남편 > 부인 가구	216 (9.1)	327 (13.8)
남편 < 부인 가구	245 (10.3)	239 (10.1)
합계	2,376 (100.0)	2,376 (100.0)

[표 4]는 2차와 10차 년도의 분석 표집에 대한 일원 변량분석을 적용하여 취업유형에 따른 부부의 계층의식 차이 여부를 따져본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 분석 결과를 통해 확인되는 흥미로운 발견은 2차와 10차 년도에 공통적으로 그리고 부부 모두 비정규직일 경우에 가장 낮은 계층의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심지어 무직-실업의 상태에 있는 기혼남녀에 비해서도 열등한 계층지위를 갖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노동양극화의 핵심적인 배경원인이라 사회적 차별의 주된 대상이 되고 있는 비정규직의 취업형태가 해당 노동자들의 계층의식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또한, 2차와 10차 년도의 또다른 공통점으로서 부인의 경우 정규직과 자영업 및 무급가족종사자 그리고 무직 또는 실업이 계층의식에 있어 별 차이를 드러내지 않고 있으며, 남편의 경우에는 무직/실업이 정규직과 자영업에 비해 낮은 계층의식을 보이고 있다. 다만, 남편의 계층의식에 있어 2차년도와 10차년도 사이에 일정한 차이를 드러내는 바, 전자에는 정규직이 자영업 보다 높은 계층의식을 보유하는 데에 비해 후자에서는 두 개의 취업유형에서 계층의식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표 4] 취업유형에 따른 부부의 계층의식 차이 ANOVA 검정 결과

취업유형	2차 패널 (1999년)		10차 패널 (2007년)	
	남편	부인	남편	부인
정규직 (A)	2.14	2.04	3.06	2.80
비정규직 (B)	1.67	1.78	2.34	2.41
자영업/가족종사자 (C)	2.02	2.01	2.93	2.80
미취업/실업 (D)	1.81	2.04	2.54	2.86
유의한 항목차이 비교	A>C>D>B	A·C·D>B	A·C>D>B	A·C·D>B

(주) 2차 패널 4점 척도, 10차 패널 6점 척도 비교 검증: Turkey HSD 항목간 비교 유의도 검증 $p<.01$

[표 5]에서는 2차년도(1999년)와 10차년도(2007년) 사이의 8년 기간에 부부의 계층의식이 어떻게 변하였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2차년도와 10차년도의 계층의식을 비교하기 위해 10차

년도의 계층지위범주를 2차년도에 4개 서열범주에 맞추어 재가공한 다음, 서열 층위를 점수화하여 그 변동 값을 구하였다. 그 결과, 남편의 55.9%와 부인의 56.5%가 변동 없는 동일 수준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남편의 경우에는 29.0%, 그리고 부인의 경우에는 27.3%가 상위의 계층의식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편의 15.2%와 부인의 16.4%가 보다 낮은 계층을 갖게 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외환위기 직후의 불황국면에 놓여 있던 1999년(2차년도)과 비교하여 2007년에 상대적으로 양호하였던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부부의 계층의식 변동에는 (이후에 다루는 개인적 속성 변동 이외에) 사회경제적 상황조건이 일정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추론해볼 수 있을 것이다.

[표 5] 부부의 계층의식 변동 분포 (명, %)

2~10차	사회계층 인식 변동					
	-2	-1	0	1	2	3
남편	18 (0.8)	342 (14.4)	1,328 (55.9)	643 (27.1)	45 (1.9)	0 (0.0)
부인	9 (0.4)	379 (16.0)	1,342 (56.5)	605 (25.5)	40 (1.7)	1(0.1)

(주) 2차 패널의 4점 척도(상-중상-중하-하)에 맞추어 10차 패널의 6점 척도(상상-상하-중상-중하-하상-하하)에서 '상상+상하'와 '하상+하하'를 '상'과 '하'로 분류하여 일치시켰음.

취업자는 2차와 10차 모두 취업한 집단

[표 6]에서는 2차년도 부부의 계층지위인식에 대한 서열로짓 회귀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분석 모형은 동일하게 남편과 부인의 취업여부에 따라 4개의 집단으로 구성하여 비교하고 있다. 우선, 기혼 남성의 전체집단을 살펴보면, 계층의식의 형성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변수는 '학력(+)', '근로소득(+)', '비정규직고용(-)', '가구소득(+)', '가구자산(+)', '가구 생활비(+)', '가구 주택가격(+)'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구의 경제적 조건들과 개인의 계층지위 인식이 정적인 상관관계를 유의하게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본인의 근로소득 역시 계층의식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또한 본인이 고학력일수록 계층의식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본인의 취업유형이 비정규직일 경우에 낮은 계층의식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혼 여성의 전체집단을 살펴보면, 계층의식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변수는 '학력(+)', '비정규직고용(-)', '배우자학력(+)', '배우자의 근로소득(+)', '배우자의 비정규직 고용(-)', '가구소득(+)', '가구자산(+)', '가구 생활비(+)', '가구 주택가격(+)'이다. 가구의 경제적 조건들은 남성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그런데, 기혼 여성들은 남성과 달리 자신의 계층의식을 인식할 때 본인의 소득을 고려하지 않으며, 배우자의 근로소득과 배우자의 학력, 배우자의 비정규직 유무와 같은 배우자의 속성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외 선행연구에서 논의되어온 바와 같이 기혼 여성의 경우 본인의 계층의식을 결정할 때 자신의 특성보다 배우자의 특성을 보다 많이 고려하거나 차용한다는 점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기혼 남성의 취업집단을 살펴보면, 계층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는 기혼 남성의 전체 집단과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기혼 여성의 취업집단에서는 기혼 여성의 전체집단과 비교하여 배우자 학력과 근로소득 그리고 3개의 가구변인(자산·생활비·주택가격)만이 유사한 결과를 보일 뿐 여타 변인(예: 본인의 학력과 비정규직 취업, 배우자의 비정규직 취업, 그리고 가구의 총소득)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같은 결과는 취업 여성들이 미취업여성 보다 본인의 특성에 의존하여 계층의식을 형성할 것이라는 통념과는 어긋나는 결과라는 점에서 유의할 만하다.

[표 6] 2차 패널의 부부 계층의식에 관한 Ordered Logit 회귀분석 결과

		부부 전체		부부 모두 취업	
		남편	부인	남편	부인
본인 속성	학력	0.077***	0.046*	0.063*	0.013
	연령대 40대	-0.1596	-0.149	-0.243	-0.215
	50대	-0.140	-0.100	-0.313	-0.092
	60대	0.335	0.374	0.176	0.274
	근로소득	0.110***	0.004	0.151***	0.025
	비정규직	-0.698***	-0.396*	-0.672*	-0.412
	자영업	-0.100	0.017	-0.073	-0.033
	미취업/실업	0.275	0.114		
	직업위세			0.003	0.011
배우자 속성	배우자 학력	0.033	0.063***	0.001	0.070***
	배우자 근로소득	0.000	0.081**	0.009	0.077*
	배우자 비정규직	-0.192	-0.590***	-0.256	-0.213
	자영업	0.204	-0.136	0.258	0.138
	미취업/실업	0.136	0.178		
	배우자 직업위세			0.014	0.002
가구 속성	가구소득	0.159***	0.100**	0.210**	0.084
	가구자산	0.155***	0.152***	0.152***	0.185***
	가구 생활비	0.658***	0.617***	0.675***	0.639***
	가구 주택가격	0.456***	0.455***	0.404***	0.378***
	Threshold 1	10.812***	9.710***	11.059***	9.714***
	Threshold 2	14.331***	13.268***	14.797***	13.290***
	Threshold 3	18.939***	18.108***	19.913***	19.023***
	-2LL	3466.546***	3458.678***	1347.801***	1385.594***
	Nagelkerke R ²	0.346	0.316	0.343	0.299
	N(사례수)	2136	2136	864	864

(주) *** p<0.001, ** p<0.01, * p<0.05

[표 7]에서는 10차년도 부부의 계층지위인식에 대한 서열로짓 회귀분석 결과를 정리-예시하고 있다. 분석모형별로 그 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남성 전체집단의 경우 계층의식의 형성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변수는 ‘학력(+)’, ‘40대(-)’, ‘비정규직 취업(-)’, ‘배우자 근로소득(-)’, ‘가구소득(+)’, ‘가구자산(+)’, ‘가구 생활비(+)’, ‘가구 주택가격(+)’이다. 2차년도의 분석결과와 마찬가지로 가구의 경제적 조건과 본인의 학력이 계층의식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이는 한편, 비정규직 취업의 경우에는 부적(-)인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흥미롭게도, 연령대가 40대

일 경우 계층의식이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는 최근 기업의 상시적 구조조정과 자영업자의 잦은 사업실패 등으로 인해 장년층 남성들이 고용불안과 경제적 지위하락에 시달리는 세대와 관련지어 이해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기혼 여성의 전체집단을 살펴보면, 계층의식의 형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학력(+)', ‘60대(+)', ‘비정규직고용(-)', ‘배우자학력(+)', ‘배우자의 비정규직 고용(-)', ‘가구소득(+)', ‘가구자산(+)' ‘가구 생활비(+)' ‘가구 주택가격(+)'이 손꼽히고 있다. 2차년도의 분석결과와 비교하여 배우자의 근로소득이 계층의식에 대해 유의한 효과를 갖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한편, 60대 연령층이 정적인 상관관계를 유의하게 보여주고 있다.

기혼 남성 취업집단의 경우에는 계층의식에 영향을 주는 변수가 ‘근로소득(+)', ‘직업위세(+)', ‘가구소득(+)', ‘가구자산(+)' ‘가구 생활비(+)' ‘가구 주택가격(+)'로 드러나 2차년도와 동일하게 가구의 경제적 조건과 본인의 속성만을 고려하는 것으로 확인되다. 다만, 기혼 남성의 전체집단에 비해 본인의 학력, 40대, 비정규직 취업, 배우자 근로소득이 유의한 영향을 잃고 있으며, 또한 2차년도와 비교할 경우에도 본인의 학력과 비정규직 취업에 의한 영향이 유의하지 않은 대신 직업위세가 유의하게 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상이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기혼 여성 취업집단의 경우 계층의식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기혼 여성의 전체집단과 일정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는 바, 본인의 학력과 비정규직 취업, 그리고 배우자의 학력과 비정규직 취업에 의한 유의한 영향이 사라지는 한편, 배우자의 근로소득과 직업위세가 주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차년도의 기혼 여성 취업집단과 비교할 경우 본인의 특성으로서 60대 연령과 배우자의 직업위세가 사회계층의식에 정적인 방향으로 유의하게 영향미치는 한편 배우자의 학력이 미치는 영향이 더 이상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표 7] 10차 패널의 부부 계층의식에 관한 Ordered Logit 회귀분석 결과

		부부 전체		부부 모두 취업	
		남편	부인	남편	부인
본인 속성	학력	0.062***	0.053**	0.042	0.048
	연령대 40대	-0.351*	-0.140	-0.152	-0.009
	50대	-0.222	-0.148	0.044	-0.025
	60대	0.313	0.544**	0.623	1.118***
	근로소득	0.031	-0.022	0.118**	0.011
	비정규직	-0.598***	-0.333*	-0.343	0.058
	자영업	-0.215	-0.024	0.040	-0.406
	미취업/실업	-0.206	0.100		
	직업위세			0.019**	0.001
배우자 속성	배우자 학력	0.035	0.052**	0.032	0.029
	배우자 근로소득	-0.035*	0.040	-0.009	0.099*
	배우자 비정규직	-0.247	-0.474**	-0.294	-0.261
	배우자 자영업	-0.014	-0.215	0.109	-0.084
	배우자 미취업/실업	0.029	-0.037		
	배우자 직업위세			0.000	0.019**
가구 속성	가구소득	0.430***	0.355***	0.677***	0.554***
	가구자산	0.164***	0.162***	0.155***	0.154***
	가구 생활비	0.721***	0.742***	0.513**	0.680***
	가구 주택가격	0.463***	0.500***	0.327***	0.405***
	Threshold 1	12.085***	12.399***	12.469***	13.665***
	Threshold 2	14.324***	14.653***	14.952***	16.101***
	Threshold 3	16.927***	17.266***	17.676***	18.872***
	Threshold 4	20.008***	20.440***	20.982***	22.891***
	Threshold 5	21.801***	22.112***		25.044***
	-2LL	4986.021***	4963.898***	1932.568***	1893.800***
	Nagelkerke R ²	0.440	0.438	0.391	0.408
	N(사례수)	2268	2268	917	917

(주) *** p<0.001, ** p<0.01, * p<0.05

[표 8]에서는 1999~2007년의 기간에 기혼 남녀의 사회계층의식 변동에 어떠한 요인들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⁵⁾ 남편의 경우에는 본인의 취업형태가 비정규직으로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하였을 때, 그리고 배우자가 비정규직 일자리를 그만두고 무직이나 실업상태로 바뀌었을 때 계층의식의 상향 변동이 나타나고 있다. 부인의 경우에는 40대와 50대의 연령층으로 진입할 경우와 본인의 취업형태가 비정규직에서 무직/실업상태로 전환되거나 배우자의 취업형태가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바뀌었을 경우 계층의식의 상향 변동이 이뤄지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남편과 부인 모두 가구의 총소득과 생

5) [표 5]에서 예시하듯이 기혼여성의 경우에는 1999~2007년의 기간에 사회계층의식의 변동에 있어 세 계단을 상승시킨 사례가 1건이 보고되나, 그 수가 미미하여 계층의식 변동의 서열로짓 분석에는 두 계단 상승의 범주로 묶어 분석하였다. 부부 모두 취업한 표집에 대해 역시 서열로짓 분석을 실시하였으나 그 모형의 설명력이나 변인의 효과가 별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아 생략하였음을 밝혀 둔다.

활비지출이 늘어날 때 그들의 계층지위인식이 상향 변동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요컨대, 계층의식의 변동에서는 취업형태, 특히 비정규직으로부터의 탈피 여부와 가구의 소득과 생활비지출 그리고 여성의 경우에는 세대이동 효과가 각각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다만, [표 8]에서 주요 변인들에 대해 2차년도와 10차년도의 변동차이를 산출하여 구성한 분석모형의 설명력이 매우 낮다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는 아무래도 종속변인인 사회계층의식에 대해 2차년도와 10차년도에 각기 상이하게 설정되어 있는 4개와 6개의 측정범주를 인위적으로 통합하여 그 차이값을 계산하여 회귀분석을 시도한 결과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된다.

[표 8] 기혼 남녀의 사회계층의식 변동에 대한 Ordered Logit 회귀분석 결과

		남편	부인
본인 속성	청장년층(30대) 진입	.335	-.064
	중년층(40대) 진입	-.043	-.213†
	중고령층(50대) 진입	.031	-.235†
	고령층(60대이상) 진입	1.55	.046
	정규직/자영업→비정규직	-.006	.284
	비정규직→정규직/자영업	.552*	.381
	정규직/자영업→미취업/실업	-.175	.118
	미취업/실업→정규직/자영업	.145	.035
	비정규직→미취업/실업	.403	.762***
	미취업/실업→비정규직	.227	-.051
배우자 속성	근로소득 변동값	-.000	.000
	정규직/자영업→비정규직	.294	-.151
	비정규직→정규직/자영업	.320	.403†
	정규직/자영업→미취업/실업	.013	-.036
	미취업/실업→정규직/자영업	-.016	.052
	비정규직→미취업/실업	.663**	.400
	미취업/실업→비정규직	-.138	-.038
가구속성	근로소득 변동값	-.000	-.000
	가구소득 변동값	.000***	.000†
	가구자산 변동값	-.000	.000
	가구 생활비 변동값	.000**	.000***
	가구 주택가격 변동값	-.000	-.000
Threshold 1		-7.227***	-6.975***
Threshold 2		-4.157***	-3.125***
Threshold 3		-1.511	-.488
Threshold 4		1.695	2.726**
-2LL		4347.175***	4291.447***
Nagelkerke R ²		.040	.029
N(사례수)		2055	2055

(주) *** p<0.001, ** p<0.01, * p<0.05, †p<0.1

V. 맺음말

이상의 분석결과를 종합해보면 몇가지의 흥미로운 연구함의를 도출해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이번 분석에서 무엇보다 두드러진 결과로서 성별을 불문하고 그리고 조사시점에 관계 없이 기혼 남녀의 사회계층의식에 대해 가구의 경제적 속성이 매우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2차년도 취업여성집단의 모형을 제외한 모든 분석모형에서 4개의 가구 변인이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선행 연구에서 소홀히 다뤄져온 가구의 경제적 조건이 기혼남녀의 계층지위 인식을 결정함에 있어 본인과 배우자의 속성 이상으로 일관되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같은 분석결과를 통해 기혼 남녀의 계층의식을 규명함에 있어서는 개인적 속성과 배우자 특성에 못지않게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가구단위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잘 따져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다만, ([표 8]에서 보여주듯이) 가구의 경제적 조건들이 계층의식의 횡단분석에서는 유의하게 영향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는 한편, 계층의식 변동에 대한 종단분석에서는 가구의 총소득과 생활비만이 중요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겠다. 다시 말해, 가구의 경제적 조건들 대부분이 특정 시점의 계층의식을 결정하는 데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일정 기간에 계층의식의 변동여부에 영향미치는 가구 특성으로는 고정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자산과 주택가격 보다는 총소득과 생활비 지출규모가 보다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기혼 남녀의 계층의식에 관한 국내외 선행연구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기혼 남성의 경우에는 자신의 계층의식을 독자적으로 형성하는 “독립형”의 성격을 강하게 갖고 있는 반면, 기혼 여성들은 본인의 특성과 배우자 속성이 함께 고려되는 “공유형”을 보이는 가운데, 특히 취업한 기혼 여성의 경우에는 흥미롭게도 배우자의 속성에 의존하거나 차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 특기할 만하다. 이러한 결과는 기혼 여성들 취업하는 일자리가 우리 노동시장의 취약부문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아 그들의 취업경험이 자신의 독자적인 계층지위를 인식하는 방식으로 작용하지 못하고 배우자의 조건에 오히려 의존·수렴하게 만드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기혼 남녀의 사회계층의식에 대해 본인과 배우자의 주요 특성으로서 학력과 비정규직 취업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사회계층의식의 변동에 있어서도 본인과 배우자의 취업유형에서 비정규직으로부터의 탈출 여부가 유의하게 영향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도 드러나듯이, 우리 노동시장에서 매우 열악한 신분지위와 차별적 처우가 주어지고 있는 비정규직의 취업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계층지위의 핵심적인 판단기준으로 작용하고 있음이 잘 드러나고 있다. 아울러, 기혼 여성의 경우에는 배우자의 특성 중에서도 근로소득의 크기가 자신의 계층의식 형성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의 “차용” 또는 “의존” 경향을 보여주기도 한다. 또한, 이번 연구에서는 기혼 남녀의 계층지위의식과 관련하여 기존 연구에서는 별로 다루지지 않는 연령층 또는 세대의 효과가 일정하게 드러나고 있는 바, 기혼 남녀 모두에 대해 40~50대의 연령층 진입이 계층지위 인식의 하락

을 초래하는 한편, 여성의 경우에는 60대의 고령층 진입을 통해 계층지위를 상승시키는 인식 변화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이채롭다. 이는 우리 사회에 중년층 세대의 사회경제적 위상이 크게 약화되는 측면을 보이는 한편, 기혼 여성의 경우 60대의 고령층 진입에 의해 남성 배우자와 자녀들에 대한 돌봄의 책임으로부터 벗어남에 따라 계층지위상의 심리적 상승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추론해볼 수 있다.

참고 문헌

- 권성일. 1994. 「한국 노동자계급의 계급경험과 계급의식」, 후기 사회학대회 발표논문.
- 김병조. 2000. 「한국인 주관적 계층의식의 특성과 결정요인」. 《한국사회학》 제34집. 241-268쪽.
- 박미혜·홍두승. 1994. 「계층인식에 있어서의 여성의 기여」. 《한국사회학》 제28집(1). 101-120쪽.
- 이재경. 1992. 「가족과 사회계층」. 《가족학논집》 제4집. 115-133쪽.
- 신광영. 2003. 「한국의 사회계급과 불평등실태: 서베이 자료분석을 넘어서」. 《경제와 사회》 제59호. 32-54쪽.
- . 1999. 「한국사회의 계급과 신분질서의 변동」. 《경제와 사회》 제44권. 30-58쪽.
- 안치민. 1992. 「한국사회의 계급구조화 연구」. 《한국사회학》 제26집(여름호). 59-81쪽.
- 이병훈·윤정향. 2006. 「사회계층의식의 변동에 관한 연구」. 《경제와 사회》 제70호. 111-140쪽.
- 장상수. 1996. 「한국 사회에서의 주관적 계층위치」. 《사회변동과 성·민족·계급》 한국사회학회 논문집 49호. 180-212쪽.
- 조돈문. 1994. 「노동계급의 계급의식의 물적 기초: 한국, 스웨덴, 미국의 비교연구」. 《경제와 사회》 제23권. 45-81쪽.
- 최문경·이기엽. 2006. 「계층의식과 여성의 일: 한국과 스웨덴」. 《가족과 문화》 제18집 1호. 57-82쪽.
- Acker, Joan. 1973. "Women and Social Stratification: a Case of Intellectual Sexism."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78(4). pp. 936-945.
- Coleman, Richard and Lee Rainwater. 1978. *Social Standing in America: New Dimensions of Class*. New York: Basic Books.
- Davis, Nancy and Robert Robinson. 1988. "Class Identification of Men and Women in the 1970s and 1980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3(1). pp. 103-112.
- Ganzeboom, Harry, De Graaf, P. M. and Treiman, Donald. 1992. "An International Scale of Occupational Status." *Social Science Research* 21. pp.v 1-56.
- Kelly, Jonathan and M. D. R. Evans. 1995. "Class and Class Conflict in Six Western Nation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0(2). pp. 157-178.
- Simpson, Ida Harper, David Stark, and Robert Jackson. 1988. "Class Identification Processes of Married, Working Men and Wome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3(2). pp. 284-293.

- Yamaguchi, Kazuo and Yantao Wang. 2002. "Class Identification of Married Employed Women and Men in America."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8(2). pp. 440-475.
- Yoon, Jeongkoo and Hyunho Seok. 1996. "Conspicuous Consumption and Social Status in Korea: an Assessment of Reciprocal Effects." *Korea Journal of Population and Development* 25(2). pp. 333-354.